

## 라틴아메리카의 결선투표제에 대한 연구: 투표율과 순위의 변동을 중심으로\*

이준한\*\*

단독/인천대학교

**Lee, Junhan (2016), "The Run-off Systems in Latin America: Voter Participation and Selecting the Victor"**

### ABSTRACT

This study reviews the two-round systems in Latin America. To be more specific, it is necessary to compare the theories and the realities of the two-round systems. As a result, this research finds that the two-round systems appear to exert a limited impact on improving the legitimacy and representativeness of the victors. First, voter turnout is more likely to decrease in the second round of voting. Second, however, the first runner-ups are more likely to remain at the same place rank in the second round. Third, in only 22.72% of the cases, the final victor was the candidate who had also taken first place in the first round, concurrent with increasing voter turnout. Fourth, in 18.18% of the cases, the final winner was not the candidate who had taken first place in the first round, concurrent with an increase of voter participation. Fifth, in 50.00% of the cases, the first place winner remained the same, concurrent with decreasing voter turnout. Finally, in four elections out of 44 cases (9.09%), the first runner-up became the final victor, concurrent with lower voter participation.

**Key Words:** two-round system, Latin America, legitimacy

## 머리말

2007년 벽두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론이 제기된 이후 한국에서는 줄곧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시간이

---

\* 이 논문은 인천대학교 2015년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 Junhan Lee is professor of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t Incheon National University, Korea (Email: junhanlee@inu.ac.kr).

지남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왔지만 대략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한국 대통령제 대의 민주주의에 있어서 취약한 정통성 때문이다. 한국에서 대통령이 선출되면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대표성은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유일한 정통성을 가진 것처럼 100%의 권력을 행사하는 문제가 있다. 둘째, 한국 정당체제의 양극화에 따른 대결적 정치문화 때문이다. 최근 한국의 정당체제는 지역주의에 기초한 양대 정당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대결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결선투표제는 양당제를 약화시키는 대신 정당들 사이에 연합정치를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셋째, 한국 대통령선거에서 반복되는 후보 단일화나 정당의 이합집산 때문이다. 결선투표제가 도입된다면 출마하고 싶은 대통령 후보가 모두 선거에 참여한 뒤 결선까지 치른다면 인위적인 후보 단일화나 정당의 합종연횡이라는 해묵은 문제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지금까지 한국에서 결선투표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세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어왔다. 먼저 첫 번째 방향은 한국에서 대통령의 대표성과 정통성의 보완 또는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상당하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Kang 1997; Ko 2013; Park 2004; Lee 2014; Lee 2012; Lim 2006; Jung 2004; Hong 2002). 두 번째 선행연구의 방향은 한국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때 법적인 측면에서 과연 개헌이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법적인 절차나 장치가 필요한지를 찾는 데로 초점이 옮겨졌다(Kim 2012; Kim 2014; Kim 2006; Kim 2008; Song 2014; Sung 2012). 세 번째 선행연구의 방향은 실제 현실세계에서 결선투표제가 과연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례연구나 통계분석에 기초한 비교연구로 맞추어졌다(Park 2010; Ahn 2009; 2010; 2014; Lee 2006; 2010; Hong, Kim and Cho 2012). 그러나 현재까지 선행연구는 한국에서 결선투표제의 도입에 대한 찬성이거나 반대 가운데 어느 한쪽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데까지 도달하지는 못했다.

이 연구는 아직 한국에 익숙하지 않은 선거제도 가운데 하나인 결선투표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욱 넓히기 위하여 결선투표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추적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해본다. 여기에서는 결선투표제에서 투표율이 하락하고 순위가 바뀌는 현상이 얼마나 발생하고 이러한 현상이 어떠한 정치적 의미를 가지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 연구의 대상은 민주적인 결선투표의 사례가 비교적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결선투표제이다. 이 연구결과는 궁극적으로 한국이 만약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현실적인 함의를 찾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먼저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결선투표제의 정의와 제도적 목적 및 분석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 다음으로 연구의 사례로 라틴아메리카 결선투표제의 특징과 데이터의 출처 및 분석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라틴아메리카 결선투표의 실제결과를 투표율의 하락과 순위의 변동이라는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그 이론적이고 현실적인 함의를 정리한다. 본 연구는 결선투표제의 실제적 작동에 대하여 보다 일반적인 경향을 찾고 이에 대한 의미를 평가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만, 각 선거 하나하나마다 자세한 환경 및 배경이나 과정을 일일이 설명하고 특별히 고려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 결선투표제의 특징: 선행연구 분석

결선투표제는 득표율을 기준으로 할 때 당선자에게 대체로 50% 이상의 득표를 요구하는 절대다수제(majority system)와 동격으로 간주된다. 이는 선거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라면 50% 이하의 표를 얻어도 이기는 것을 허용하는 단순다수제(simple plurality system)와 대조되는 선거제도이다. 또한 결선투표제는 투표의 횟수를 기준으로 할 때 승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체로 두 번의 투표를 요구하기 때문에 ‘투 라운드 시스템’(two round system)이라고도 불린다(Grofman 2008). 이는 선거에서 한 번의 투표만으로 승자를 결정하는 보통의 경우와 크게 다르다. 하지만 지구상의 결선투표제 가운데에는 절대다수제라는 본원적 기준인 50% 대신 더 낮은 기준을 제시하는 조건부 결선투표제(qualified runoff system)도 있고 두 번의 투표 대신 한 번의 기표로 결선투표까지 마무리하는 즉석식 결선투표제(instant runoff system)도 없지 않다(Cox 1997; Golder 2005).

일반적으로 50%를 기준으로 삼는 결선투표제는 제1차 라운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 제2차 라운드에서 상위 득표자 둘 사이에 다시 한 번 더 투표하게 함으로써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게 한 뒤 그로 하여금 최종 승자로 삼는 선거제도이다. 이러한 특유의 작동 메커니즘을 통하여 결선투표제가 얻고자 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그 무엇보다도 당선자의 정치적 정통성과 대표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거의 없다(Blais,

Massicotte and Dobrzynska 1997). 가령 선거에서 투표율이 낮는데 단순다수제이기 때문에 승자가 겨우 유권자의 20-30% 정도만 득표하여 탄생한다면 당선자의 정치적 대표성은 그만큼 낮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결선투표제에서는 과반수 지지를 확보한 승자를 보장하기 때문에 그만큼 당선자에게 높은 수준의 정통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이건 또는 의회의 일원이건 승자가 해당 지역 유권자의 절대 다수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그 정치 지도자는 비록 선출된 것은 맞지만 자기를 지지한 유권자보다 자기를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가 더 많다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법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만큼 승자의 정통성과 대표성이 취약하고 유권자로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권력을 온전하게 위임받았다고 보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른다.

결선투표제가 과반수 지지를 확보한 승자를 탄생시키면서 그 정통성과 대표성을 향상시킨다는 효과는 제2차 라운드에 앞서 유권자가 자신의 선택에 대하여 한 번 더 심사숙고하는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 결선투표제는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두 번씩이나 유권자로 하여금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르토리(Sartori 1994, 64)는 결선투표제가 제2차 라운드에서 유권자로 하여금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다시 선택하게 만들어 ‘지적인 선택’(intelligent choosing)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때 사르토리는 7년 연임제였던 과거 프랑스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과거 프랑스에서는 대통령이 한 번 선거에 승리하면 7년 동안 집권했고 만약 재선이라도 된다면 14년이라는 매우 긴 기간 동안 통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매우 장기간 동안 국가와 자신의 미래를 맡길 대통령을 선택하는데 결선투표제라도 이용하여 유권자로 하여금 한 번 더 심사숙고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또한 결선투표제가 두 번의 투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극단적인 성향의 정당이 집권할 가능성을 줄이는 것도 정권의 정통성과 대표성의 향상에 기여한다. 제1차 라운드에서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가 2등 안에 들지 못하면 결선투표에서는 막상 자신이 지지할 후보가 없어진 유권자들은 차선의 선택이라도 취하게 된다. 이때 유권자들은 제2차 라운드에 오른 두 후보 가운데 자신이 상대적으로 더 싫어하는 후보가 승리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선택을 내릴 가능성이 생긴다. 예컨대 프랑스의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는 중도우파인 시라크(Jacques Chirac)가 19.88%를 득표하면서 1위를 했고 극우파

인 르펜(Jean-Marie Le Pen)이 16.86%를 확보하며 2위를 차지하자 결선투표가 불가피했다. 그러나 르펜은 연일 극우적인 언행을 이어갔고 이에 따라 제2차 라운드에서 시라크가 82.21%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확보한 반면 르펜은 17.79%에 그치고 말았다. 시라크가 제1차 라운드에 비하여 제2차 라운드에서 무려 세 배 정도의 몰표를 받은 데는 결선투표제가 과도하고 극단적이며 반체제적인 후보나 정당의 승리를 막는 제도적 장치로 작동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Laveri, Benoit and Sauger 2006).

그렇다면 실제로 결선투표제는 전 세계 각지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이 논문에서는 두 번의 투표과정에서 투표참여와 순위에 있어서 변동이라는 측면에서 답을 찾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남부 주지사 등의 예비선거(Bullock, Gaddie and Ferrington 2002; Ewing 1953), 노스캐롤라이나 연방의회와 주지사 예비선거(Lanier 1983), 민주당의 연방의회와 주지사 예비선거(Bullock and Johnson 1992; Wright 1989)에서 실시된 과거 수많은 결선투표의 경우 투표율이 대체로 낮아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프랑스 의회선거에서 실시된 결선투표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Indridason 2008; Fauvelle-Aymar and Lewis-Beck 2008). 또한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결선투표에서도 투표율은 대체적으로 하락했다(Perez-Linan 2006).

두 번의 투표과정에서 투표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짧으면 한 달, 길면 몇 달 사이에 대통령을 뽑기 위하여 두 번의 투표를 한다는 것은 유권자에게 투표비용을 증가시킬 뿐더러 피로감까지 더해준다. 이러한 상황은 유권자로 하여금 제2차 라운드에 불참할 것을 결정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제2차 라운드에는 최고득표자 2인만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기 때문에 다른 많은 후보의 이름이 빠지게 된다.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가 제2차 라운드에서 배제된 유권자는 그만큼 투표장으로 갈 유인을 잃어버리게 된다. 물론 제2차 라운드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게 될 경우에는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투표율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도 유권자의 합리적인 결정의 산물이라고 하겠다.

두 번의 투표과정에서 투표율의 변동은 후보의 순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물론 그 외에도 순위의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있겠지만 실제로 전 세계 각지의 결선투표에서 순위변동은 적지 않게 발생했다. 1940년대 자신의 연구사례 가운데 약 1/3 이상의 결선투표에서 제1차 라운드와 순위가 서로

바뀌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한 바 있는 키(Key 1949)의 연구결과는 아직도 후속 연구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연구대상의 시기가 1970년부터 1986년 사이의 예비선거(Bullock and Johnson 1992)로 바뀌거나, 1980년부터 2002년 사이의 예비선거(Engstrom and Engstrom 2008; Glaser 2006)로 바뀌어도 결선투표에서 상위 득표자 2인의 순서가 약 1/4에서 1/3정도 바뀌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단순다수제라면 패배했을지도 모르는 백인 후보들이 최종적으로 흑인 후보들을 제치고 민주당 티켓을 쥐고 연방의회에 진출했다. 또한 1990년대 초반까지 라틴아메리카의 결선투표 가운데 약 1/4 정도에서는 제1차 라운드 의 1등이 최종 승자가 되지 못했다(Shugart and Taagepera 1994). 시기가 1979년부터 2002년까지 넓혀진 라틴아메리카 결선투표의 약 1/3에서도 제1차와 제2차 라운드 사이의 1등이 서로 뒤바뀌었다(Perez-Linan 2006).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이 논문은 결선투표의 실제결과를 투표율과 순위의 변동이라는 측면에서 네 개의 경우로 구분한다. 즉 제1차와 제2차 라운드에서 투표율이 상승하거나 또는 하락하는 경우와 순위가 유지되거나 혹은 변동되는 경우를 각각 조합한 것이다. 표 1은 각각의 경우를 요약하고 있다. I의 경우는 투표율이 상승하는 동시에 1등과 2등의 순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II의 경우는 투표율이 상승하지만 그 순위가 뒤바뀌는 것이다. III의 경우는 투표율이 하락하면서 그 순위가 유지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IV의 경우는 투표율이 하락하는 동시에 그 순위도 서로 뒤바뀌는 것이다.

표 1. 결선투표 실제결과: 경우의 수

		순위	
		유지	변동
투표율	상승	I	II
	하락	III	IV

네 가지 경우 가운데 투표율이 상승하는 동시에 순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I의 경우가 결선투표제의 제도적 목적인 승자의 정통성과 대표성을 향상시키는 데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최종 승자가 아무리 과반수의 지지를 확보하지만 제1차 라운드의 2위였다가 제2차 라운드에서 1위로 겨우 바뀌는 경우(II)와 최다득표자가 바뀌지 않지만 제1차 라운드에 비하여 제2차 라운드에서 투표율이 낮아진 경우(III)는 앞의 I의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결선투표제의 제도적 목적을 충족시키는데 부족함이 생긴다고 하겠다. 특히 제2차 라운드의 투표율이 제1차 라운드보다 더 낮아지는 환경에서 제1차 라운드에서 2등을 한 후보가 최종 승자로 올라서는 경우(IV)에는 결선투표제의 제도적 목적이 달성되는지 오히려 의심을 사게 될 것이다(Blake 2005; O'Donnell, Cullell and Lazetta 2004; Wiarda 2006).

대의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고 할 때 일단 시민의 대표적인 정치참여로 꼽히는 투표참여가 높다는 것은 해당 사회의 대의 민주주의 수준이 과히 낮지 않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1차 라운드에 비하여 제2차 라운드에 참여한 유권자의 숫자가 감소한다면 결선투표제가 그만큼 대의 민주주의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것도 잦은 투표에 따른 유권자의 피로감이나 가장 선호하는 후보의 이름이 제2차 라운드의 투표용지에서 배제되면서 투표율이 낮아지는 것이라면 아무리 유권자 차원에서 기권이 합리적인 선택이라지만 사회적 차원에서는 엄연히 투표율의 하락인 것이다. 그리고 대의 민주주의에서 당선자의 정통성과 대표성을 향상시키려면 법적으로건 상식적으로건 선거결과에 대한 시비나 이견이 제기될 여지가 적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결선투표제에서 제1차 라운드의 1등 대신 2등이 제2차 라운드에서 1등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당선자가 된다면 그만큼 승자의 정통성이나 대표성에 대하여 의문이 따라다닐 수 있다고 하겠다. 제1차와 제2차 라운드 사이에 투표율의 변화나 최다득표자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충분히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결선투표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제공한다.

## 라틴아메리카의 결선투표제: 자료와 연구방법

이 연구의 사례는 공간적으로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모든 결선투표제 국가들이고 시간적으로는 각국마다 민주적인 결선투표가 실시된 시점부터 논문이 작성된 2016년 현재까지로 삼는다. 다시 말하자면 이 논문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실시되었던 민주적 결선투표 전체의 실제 결과를 추적한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12조에 따라 결선투표제를 실시하는데, 실제로 결선투표가 실시된 사례는 약 100년 전에 가까운 1824년 대통령선거가 유일하다. 이에 비하여 캐나다는 의원내각제 국가로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결선투표제를 실시하지 않는다. 또한 이 두 국가는 다른 아메리카 국가들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한 묶음으로 비교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라틴아메리카에는 모두 33개의 독립국가가 있다. 이 가운데 대통령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는 모두 12개(Antigua and Barbuda, Bahamas, Barbados, Belize, Dominica, Grenada, Guyana, Jamaica, Saint Kitts and Nevis, Saint Lucia, Saint Vincent, Trinidad and Tobago)이다(<http://pdba.georgetown.edu/Elecdata/elecdata.html> 검색일 2016.01.11). 이와 반대로 대통령선거를 실시하는 국가는 21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쿠바는 2014년 현재 프리덤 하우스의 연례평가에 의하여 비자유(not free) 국가 가운데 하나로 분류된다. 나머지 20개 국가 가운데 수리남은 대통령을 의회에서 간선제로 선출하는 한편 온두라스, 멕시코, 파나마, 파라과이, 베네수엘라는 결선투표제를 실시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의 분석대상은 14개의 라틴아메리카 결선투표제 국가가 된다. 1997년의 연구(Blais, Massicotte and Dobrzynska 1997)는 12개 국가(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니카라과, 페루)를 다루었고, 2006년의 연구(Perez-Linan 2006, 131)는 12개 국가(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과, 페루, 우루과이)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이에 비하여 이 논문에서는 14개 국가(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아이티, 과테말라, 니카라과, 페루, 우루과이)를 연구대상으로 시작한다. 이들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결선투표제가 확산된 배경에는 파퓰리스트적인 후보가 갑자기 등장하고 또 당선되는 가능성을 줄이려는 시도가 자리하고 있다(Shugart and Taagepera 1994). 대표적으로 1970년 칠레 대통령선거에서 아옌데가 36%라는 저조한 득표율로 당선되자 장차 이와 유사한 선거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려는 차원에서 결선투표제가 심각하게 고려되었다. 결국 칠레에는 1980년부터 결선투표제가 도입되었고 이와 비슷한 시점에 결선투표제는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게 퍼져 나갔다.

표 2는 라틴아메리카 결선투표제 국가와 그 특징 등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다. 맨 왼쪽 칸의 국가 이름 밑에 왼쪽 숫자는 민주적인 선거가 치러지기 시작한 해이고 그 오른쪽은 현재의 결선투표제가 처음 도입된 해를 의미한다. 이를 통하여 각국에서 민주적인 결선투표가 실시된 시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다. 그리고 가운데 칸은 각국마다 서로 다른 결선투표제의 다양한 형태와 조건을 설명한다. 또한 맨 오른쪽 칸은 각국에서 실제로 결선투표가 실시되었던 해를 의미한다. 이 표의 집계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도합 14개 국가가 결선투표제를 도입했고, 민주화 이후 전체 49회의 결선투표를 실시했다.

표 2. 라틴아메리카의 결선투표제

국가	조건	결선투표 실시년도
아르헨티나 1983/1994	1위가 45% 이상 득표하지 못하고 2위와의 표차가 10% 포인트 미만일 경우	2015
볼리비아 1985/1967	50%를 넘는 후보가 없을 때 의회에서, 2009년 개헌 이후 국민투표로 실시	1985, 1989, 1997, 2002
브라질 1986/1988		1989, 2002, 2006, 2010, 2014
칠레 1989/1980		1999, 2009, 2013
콜롬비아 1974/1991		1994, 1998, 2010, 2014
코스타리카 1953/1936	50% 대신 40% 기준	2002, 2014
도미니카 공화국 1978/1994	1996년부터 결선투표 실시	1996
에콰도르 1978/1998	1위가 40% 이상 득표하지 못하고 2위와 표차가 10% 포인트 미만일 경우	1978(50%), 1984, 1988, 1992, 1996, 1998, 2002, 2006
엘살바도르 1984/1983		1984, 1994, 2014
과테말라 1985/1985	2015	1985, 1990, 1995, 1999, 2003, 2007, 2011, 2015
아이티 1987/	2015	2010, 2016
니카라과 1984/2000	40% 미만, 또는 1위가 35% 이상 득표하지 못하고 2위와 표차가 5% 미만일 경우	
페루 1995/1979		1990, 2000, 2001, 2006, 2011
우루과이 1966/1996		1999, 2009, 2014
14개 국가		49개 결선투표

출처: Jones(1995, 7); McClintock(2007, 5); <http://pdba.georgetown.edu>, <http://www.as-coa.org/articles/mandatory-voting-and-voter-turnout-americas>

표 2와 같이 니카라과는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선투표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비하여 아르헨티나의 2003년 대통령선거에서는 결선투표의 기준인 45%를 득표하는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결선투표가 불가피했다. 하지만 제1차 라운드에서 최다득표에 성공했던 현직 대통령 (Carlos Menem, 24.5%)이 제2차 라운드를 포기하고 대신 2위(Néstor Kirchner, 22.2%)에게 대통령직을 넘겨버렸다([http://en.wikipedia.org/wiki/Elections\\_in\\_Argentina\\_2003](http://en.wikipedia.org/wiki/Elections_in_Argentina_2003) 검색일 2016.01.31). 그 뒤 2015년에 이르러 비로소 아르헨티나는 처음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했다.

이에 반하여 에콰도르는 결선투표제가 도입된 이래 2006년까지 줄곧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도합 8회의 사례를 가지고 있고, 과테말라도 마찬가지로 결선투표제가 도입된 이래 계속해서 7회의 결선투표를 실시해왔다. 라틴아메리카 결선투표제에서 제1차 라운드부터 제2차 라운드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3주에서 7주 정도로 국가에 따라 다르다. 다만 아이티의 2010년 결선투표는 11월 28일 제1차 라운드가 치러진 뒤부터 2011년 3월 20일까지 기다려서야 실시되었다. 또한 아이티는 2015년 10월 25일 제1차 라운드 이후 결선투표일은 애초에 2016년 4월 24일로 정해졌다가 10월 이후로 다시 연기되었다.

그 다음으로 일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조건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제2차 라운드로 가기 위하여 50%보다 낮은 기준은 물론 다양한 부가적 조건을 종종 요구한다. 이러한 국가가 모두 4개인데 먼저 아르헨티나는 1994년부터 1위가 50% 대신 45%이상 득표하지 못하고 2위와 표차가 10% 포인트 미만일 경우에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코스타리카는 1936년부터 50% 대신 40%를 결선으로 가는 기준으로 삼았다. 에콰도르에서는 과거 50%를 기준으로 했으나 1998년부터 1위가 40%이상 득표하지 못하고 2위와 표차가 10% 포인트 미만일 경우에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니카라과는 2000년부터 최고득표자가 50% 대신 40%이상 득표하지 못하거나 또는 35%이상 득표하지 못한 채 2위 득표자와 5% 포인트 이내의 격차를 가졌을 때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결선투표의 기준이 50%가 아니라, 특히 니카라과와 같이 결선투표의 기준이 40%는 물론 35%까지 완화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절대다수제로 분류되기 어려워진다.

라틴아메리카 국가 가운데 가장 독특한 결선투표제는 1967년부터 도입된 볼리비아 사례이다. 볼리비아는 대통령선거에서 50%를 넘는 후보가 없는

경우 국민이 아닌 의회에 의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했다. 의회에서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볼리비아나 미국의 사례가 서로 비슷하나 볼리비아에서는 상위득표자 2인이 경쟁의 대상이 되지만 미국에서는 3인이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2009년 개헌 이후 볼리비아도 다른 나라와 같이 제2차 라운드에서는 다시 국민에 의한 선거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볼리비아의 결선투표는 의회에서 결선을 치러 제1차와 제2차 라운드 사이의 투표율 변동을 추적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시점(1985, 1989, 1997, 2002)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이 논문의 분석대상에서는 모두 제외된다.

이상을 종합할 때 라틴아메리카의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국가는 14개이고 지금까지 결선투표가 모두 49회 실시되었지만, 이 연구에서는 볼리비아와 니카라과를 제외하고 결국 12개 국가 가운데 아이티의 2016년 결선투표를 제외한 44개 결선투표의 실제결과를 분석하게 된다. 이 연구에 필요한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선거제도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투표인수) 및 후보의 득표율(득표수) 등과 관련된 자료는 먼저 미국 조지타운 대학의 아메리카 정치적 데이터베이스(Political Database of the Americas) 홈페이지(<http://pdba.georgetown.edu>)에서 구한다. 다만 이 데이터베이스는 최근의 선거자료를 포함하여 몇 가지 선거결과를 누락시키는 한계를 갖는다.

그렇다고 해서 누락된 결선투표 관련통계가 해당 국가 선거관리기관의 홈페이지 등에서 발견될 것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라틴아메리카 국가 사이에 투표관련 통계의 집계기준도 서로 다르고 이들 국가 선거관리기관의 홈페이지가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같이 정확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애초에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홈페이지보다도 조지타운 대학의 아메리카 정치적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누락된 통계를 위키피디아(wikipedia)에서 찾아 이용한다. 조지타운 대학의 아메리카 정치적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관련통계를 위키피디아의 통계치와 비교해보면 같은 선거결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수치가 나오거나 입력오류가 있는 것을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 논문에서 부족하나마 위키피디아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위험하지 않다고 하겠다. 각종 데이터와 출처는 이 논문의 맨 뒤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 라틴아메리카 결선투표의 실제결과

앞의 표 1과 같이 결선투표의 실제결과와 관련된 경우의 수에 따라 ‘부록’에 집계된 12개 국가의 44회 결선투표 통계를 분류한 결과는 표 3으로 요약된다. 이 표에서는 먼저 투표율의 변동이란 각도에서 볼 때, 라틴아메리카에서 투표율이 제2차 라운드에서 상승하는 결선투표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전체 44회의 선거 가운데 18회로 40.91%에 그쳤다. 이와 반대로 제1차 라운드보다 제2차 라운드의 투표율이 낮아지는 사례는 59.09%(26/44회 선거)에 이르렀다. 라틴아메리카 결선투표에서는 투표율이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는 가능성이 더 높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전체 44회 선거의 제1차 라운드 평균 투표율은 68.14%인데 제2차 라운드 평균 투표율은 66.75%로 계산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1차와 제2차 라운드 사이의 평균투표율 차이는 크지 않지만 두 차례의 라운드에서 투표율이 낮아지는 사례는 주목할 만큼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표 3. 라틴아메리카 결선투표 실제결과: 경우의 수

		순 위	
		유지 72.72%(32/44개 선거)	변동 27.27%(12/44개 선거)
투표율	상승 40.91% (18/44개 선거)	22.72%(10/44개 선거)  칠레 1999 콜롬비아 1994 에콰도르 1978, 1992, 1998, 2002 엘살바도르 1984, 2014 과테말라 1985 우루과이 2009	18.18%(8/44개 선거)  콜롬비아 1998, 2014 에콰도르 1984, 1996, 2006 페루 1990, 2006 우루과이 1999
	하락 59.09% (26/44개 선거)	50.00%(22/44개 선거)  브라질 1989, 2002, 2006, 2010, 2014 칠레 2009, 2013 콜롬비아 2010 코스타리카 2002, 2014 에콰도르 1988 엘살바도르 1994 과테말라 1995, 1999, 2003, 2007, 2011, 2015 페루 2000, 2001, 2011 우루과이 2014	9.09%(4/44개 선거)  아르헨티나 2015 도미니카 공화국 1996 과테말라 1990 아이티 2010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결선투표제에서 투표율이 하락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라틴아메리카 국가가 대체로 의무투표제를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의무투표제 국가에서는 아무리 결선투표제일지라도 제2차 라운드 of 투표율이 제1차 라운드에 비하여 더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연구의 12개 라틴아메리카 결선투표제 국가 가운데 의무투표제를 실시하는 사례는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과테말라, 아이티 등 다섯 개다(<http://www.as-coa.org/articles/mandatory-voting-and-voter-turnout-americas> 검색일 2016.01.20). 하지만 이들 다섯 개 국가들의 결선투표제에서도 의무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낮아지는 현상을 피하지 못했다. 다섯 개 의무투표 국가들에서 실시되었던 17회 결선투표 가운데 제1차 라운드의 평균 투표율은 57.18%였지만 제2차 라운드에서 평균 투표율이 53.71%로 더 낮아졌던 것이다.

그 다음으로 최다득표자의 변동이란 측면에서 보면 라틴아메리카에서 제1차 라운드의 제1 순위자가 제2차 라운드에서도 제1 순위자로 유지되는 결선투표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44회 선거 가운데 32회로 72.72%에 달했다. 이에 비하여 제1차 라운드의 제2 순위자가 제2차 라운드에서 제1 순위자로 바뀌는 사례도 27.27%(12/44개 선거)나 발생했다. 이러한 수준은 앞의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인다. 결국 라틴아메리카 결선투표에서는 제1 순위자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보다 제1 순위자가 유지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틴아메리카 결선투표에서 최다득표자의 순위가 유지되는 경우는 대체로 제1차 라운드에서 제1 순위자와 제2 순위자 사이의 득표율 차이가 큰 경향이 있다. 최다득표자의 순서가 안 바뀌는 32회 선거에서 1등과 2등의 득표율 차이는 평균 11.10%였다. 물론 이 가운데 극히 예외적으로 칠레의 1999년 대통령선거 제1차 라운드의 상위 득표자 2인의 득표율 차이는 0.45% 포인트이고 콜롬비아의 1994년 대통령선거에서는 0.32% 포인트에 불과했다. 그러나 제1차 라운드에서 10% 포인트 이상 득표율의 차이를 보인 선거는 32회 가운데 15회(46.88%)를 차지했을 정도였다.

이에 비하여 라틴아메리카 결선투표에서 최다득표자의 순서가 바뀌는 경우는 대체로 제1차 라운드에서 상위득표자 2인 사이의 득표율 차이가 상대적으로 더 작은 경향이 있다. 제1차 라운드의 제2 순위자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되는 12회 선거에서 상위득표자 2인 사이의 득표율 차이는 평균 3.57%에 불과했다. 이들 선거 가운데 제1차 라운드에서 상위득표자 2인 사이의 득표율 차이가 10% 포인트 이상인 선거는 하나도 없었다.

이제 각 경우의 수를 하나씩 살펴보자. 이미 주지하듯이 표 1에서 제I의 경우는 투표율이 상승하는 동안 순위의 변동이 없는 것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라틴아메리카의 결선투표는 전체 44회 가운데 10회(22.72%)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칠레 1999년 대통령선거, 콜롬비아 1994년 대통령선거, 에콰도르 1978년, 1992년, 1998년, 2002년 대통령선거, 엘살바도르 1984년, 2014년 대통령선거, 과테말라 1985년 대통령선거, 우루과이 2009년 대통령선거이다.

그 다음으로 제II의 경우는 투표율이 상승하지만 제1 순위자가 각 라운드마다 다른 것인데 여기에는 전체 44회 선거 가운데 8회(18.18%)가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는 콜롬비아 1998년, 2014년 대통령선거, 에콰도르 1984년, 1996년, 2006년 대통령선거, 페루 1990년, 2006년 대통령선거, 우루과이 1999년 대통령선거이다. 이들 대통령선거의 제1차 라운드에서 제1 순위자와 제2 순위자 사이의 득표율 격차가 평균 3.32% 포인트에 불과했다.

특히 콜롬비아 1998년 선거의 제1차 라운드에서 1등(Horacio Serpa)과 2등(Andres Pastrana)은 각각 34.59%와 34.34%를 얻어 그 차이가 0.25% 포인트에 불과했고, 에콰도르 1996년 선거의 제1차 라운드에서 1등(Jaime Nebot)과 2등(Abdala Bucaram)이 각각 22.87%와 22.11%를 얻어 그 차이는 0.76% 포인트에 그쳤다. 제II의 경우 가운데 1등과 2등의 득표율 차이가 가장 컸던 사례는 우루과이 1999년 대통령선거로서, 제1차 라운드에서 1등(Vazquez-Nin Novoa)과 2등(Battle-Hierro)이 각각 38.51%와 31.32%를 얻어 그 차이가 7.19% 포인트였다. 제1차 라운드에서 1등과 2등의 득표율 차이가 적을수록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이 컸던 것으로 다시 한 번 확인된다.

이와 반대로 제III의 경우는 투표율이 하락하는 동안에도 제1 순위자의 변동이 없는 것인데 여기에는 전체 44회 선거 가운데 22회가 해당하여 50.00%를 차지했다. 빈도상 네 개의 경우의 수 가운데 제III의 경우가 가장 많다. 여기에는 브라질 1989년, 2002년, 2006년, 2010년, 2014년 대통령선거, 칠레 2009년, 2013년 대통령선거, 콜롬비아 2010년 대통령선거, 코스타리카 2002년, 2014년 대통령선거, 에콰도르 1988년 대통령선거, 엘살바도르 1994년 대통령선거, 과테말라 1995년, 1999년, 2003년, 2007년, 2011년, 2015년 대통령선거,

페루 2000년, 2001년, 2011년 대통령선거, 우루과이 2014년 대통령선거가 포함된다. 이들 대통령선거의 제1차 라운드에서 제1 순위자와 제2 순위자 사이의 격차는 평균 12.32% 포인트로 계산된다.

물론 이들 사례 가운데 코스타리카 2014년 대통령선거는 다소 예외적이다. 이 선거의 제1차 라운드에서 1등(Luis Guillermo Solís)과 2등(Johnny Araya Monge)은 각각 30.64%와 29.71%를 얻어 그 차이가 0.93% 포인트에 불과했지만 제2차 라운드에서는 69.05%와 27.52%로 그 차이가 현격하게 더 벌어졌다. 그 다음으로 제1차 라운드의 격차가 적었던 사례는 과테말라 2007년(4.72% 포인트)과 브라질 2006년(4.98% 포인트) 대통령선거가 있다. 그 반대편에는 콜롬비아 2010년 선거가 있는데 이 선거의 제1차 라운드에서 1등(Juan Manuel Santos)과 2등(Antanas Mockus)은 각각 46.54%와 21.49%를 얻어 그 차이가 무려 25.05% 포인트에 달했다. 제1차 라운드에서 1등과 2등의 득표율 차이가 클수록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이 적었던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된다.

제IV의 경우는 투표율이 하락하는 동시에 제1 순위자가 각 라운드마다 다른 것인데 여기에는 전제 44회 선거 가운데 4회인 9.09%를 차지한다. 빈도상으로 네 가지 경우의 수 가운데 제IV의 경우가 가장 작았다. 여기에는 아르헨티나 2015년 대통령선거, 도미니카 공화국 1996년 대통령선거, 과테말라 1990년 대통령선거, 아이티 2010년 대통령선거가 포함된다. 아르헨티나 2015년 대통령선거에서는 1등과 2등의 득표율 격차가 2.9% 포인트에 불과했으나 투표율이 0.3% 포인트 떨어진 제2차 라운드에서 득표율 차이가 2.7% 포인트로 최종순위가 바뀌었다. 도미니카 공화국 1996년 대통령선거 제1차 라운드에서는 1등과 2등의 득표율 격차가 2.2% 포인트에 불과했으나 투표율이 1.8% 포인트 떨어진 제2차 라운드에서 그 순서가 2.4% 포인트의 득표율 차이를 보이며 뒤집어졌다. 과테말라 1990년 대통령선거에서는 48.73%의 투표율 속에서 1등과 2등의 득표율 차이가 불과 0.16% 포인트에 그쳤는데 제2차 라운드에서 36.91%로 투표율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 그 순서가 36.2% 포인트의 득표율 차이를 보이며 바뀌었다. 지진의 여파 속에 치러진 아이티 2010년 대통령선거에서는 22.79%의 투표율 속에서 1등과 2등의 득표율 차이가 9.53% 포인트였는데 제2차 라운드에서 22.52%로 투표율이 조금 더 낮아진 상태에 그 순서가 35.83% 포인트의 득표율 격차를 보이면서 달라졌다.

## 맺음말

이 연구는 결선투표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라틴아메리카 사례를 중심으로 투표율과 순위의 변동이라는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라틴아메리카 지역 12개 국가에서 최근까지 실시되었던 44개 결선투표의 결과에서 나타났던 투표율과 최다득표자 2인의 순위의 변화 추이를 추적했다. 이 논문에서는 라틴아메리카 12개 국가의 44개 선거가 치렀던 각각의 구체적인 환경과 세세한 선거과정을 일일이 고려하면서 개별성을 분석하는 방향을 취하지 않았다. 대신 한 대륙에서 같은 결선투표제가 어떠한 경향을 가지고 작동하는지 투표참여와 순위라는 각도에서 그 일반성을 찾아본 것이다.

그 결과 첫째, 라틴아메리카 결선투표에서는 투표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1차 라운드보다 제2차 라운드의 투표율이 낮아지는 사례는 59.09%(26/44회 선거)에 이르렀다. 둘째, 라틴아메리카 결선투표에서는 최다득표자의 순서가 바뀌기보다 바뀌지 않는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래도 제1차 라운드의 제2 순위자가 제2차 라운드에서 제1 순위자로 바뀌는 사례는 다른 대륙의 결선투표제 사례와 비슷한 수준인 27.27%(12/44개 선거)에 이르렀던 것으로 집계되었다. 셋째, 투표율이 상승하면서 순위도 유지되는 제I의 경우는 22.72%(10/44회)에 그쳤다. 넷째, 투표율이 상승하지만 제1 순위자가 각 라운드마다 다른 제II의 경우는 18.18%(8/44회)에 이르렀다. 다섯째, 투표율이 하락하지만 제1 순위자의 변동이 없는 제III의 경우는 50.00%(25/44회)로 가장 빈번했다. 여섯째, 투표율이 하락하는 동시에 제1 순위자가 각 라운드마다 다른 제IV의 경우도 9.09%(4/44회) 씩이나 발생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마디로 제3의 민주화 물결이후 라틴아메리카 결선투표제가 지향했던 당선자의 정통성과 대표성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는데 부족함이 적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선투표제가 짧은 기간 동안 두 번의 투표를 허용하면서까지 당선자가 과반수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탄생시키려는 목적을 갖지만 라틴아메리카 결선투표 과정에서도 투표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순위가 변동되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했다. 이러한 현상은 결선투표 결과 오히려 당선자의 정통성과 대표성에 있어서 의심을 남기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의심을 불식시키는 제I의 경우는 약 네 번에 한 번 꼴에 그쳤는데, 투표율도 낮아지는 동안 순위도 바뀌어 가장 위험한



제IV의 경우도 무려 네 번씩이나 존재했던 것이다. 두 번 투표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가 투표용지에서 제외된 유권자가 제2차 라운드에서 차선의 후보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아예 투표소로 가지 않는 결선투표제의 고유한 메카니즘이 작동하는 한 투표율이 낮아지고 순위가 바뀌는 것을 막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외에도 불법선거, 결선통참, 선거결과불복 등이 널리 퍼져 있는 아프리카와 동유럽의 결선투표제에 비하여 결선투표제가 더 안정적으로 실시되는 라틴아메리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른 측면으로부터도 당선자의 정통성과 대표성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다. 가령 도미니카 공화국의 2000년 대통령선거에서는 1위가 49.87%를 획득하여 제2차 라운드가 당연히 예정되는 것이지만 24.9%에 그쳐 결선투표를 해보나마나라고 믿게 된 2위 후보가 결선투표를 포기해버렸다. 또 앞에서 살펴본듯듯이 아르헨티나 2003년 대통령선거에서는 현직 대통령인 최다득표자가 갈수록 불리해지는 여론을 감지하고 제2차 라운드를 아예 포기했다. 이러한 사례는 결선투표제라는 게임의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그 결과 당선자의 정통성이나 대표성이 향상되었다고 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Segl 2006).

사실 결선투표제는 적지 않은 경우 당선자를 조작하는 장치로 이용되기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에서 결선투표제가 각종 예비선거에서 도입된 이유는 다름 아니라 상위 득표자 2인 사이의 역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연구결과가 1940년대부터 등장했다(Alexander 1944; Glaser 2006; Key 1949; Kousser 1984; Patterson 1983). 다시 말하자면 결선에 흑인후보가 올라가면 백인후보 하나를 중심으로 연합하여 최종적으로 흑인후보를 탈락시키는 일이 만연했던 것이다. 그래서 1965년 이후 흑인참정권의 침해를 치유하기 위한 방편으로 1982년 미국의 대법원은 하급법원에게 무엇보다 결선투표제 규정을 폐지하도록 결정했다(Stewart, Sheffield and Ellis 1995). 이처럼 결선투표제가 선거결과를 조작적으로 만들어 대의 민주주의의 정치과정을 왜곡시키는 도구로 작동한 사례는 1980년대 이후 동유럽과 아프리카에서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Birch 2003).

이러한 연구결과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 한국에서 심각하게 음미해봐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대통령선거에서 최다득표자 2인의 득표율 차이는 상당히 작아서 1997년 1.6% 포인트(김대중), 2002년

2.3% 포인트(노무현), 2012년 3.6% 포인트(박근혜)로 승부가 각각 결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제2차 라운드에 각종 합종연횡이 이루어지고 선거도 과열된 채 순위가 바뀌기라도 한다면 한국적 정치문화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해보아야 할 과제이다. 물론 결선투표제에서는 제1차 라운드에서 2위가 최종 승자로 탄생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한국적 상황에서 제2차 라운드에서 선거결과를 뒤집거나 또는 더욱 굳히기 위하여 제3, 또는 제4 정당이나 후보와 연대를 하고 정책을 반영시키며 장관직을 나누는 일이 발생한다면 과연 국론이 통일되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정권이양이 이루어질 것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말이다.

또 다른 각도에서도 한국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해져야 한다는 문제가 대두된다. 다시 말하자면 결선투표제가 이미 한국에 불필요할 정도로 당선자의 득표율이 높아졌다고 지적할 수 있다. 민주화 직후 한국의 대통령선거에서는 당선자의 득표율이 1987년 36.6%(노태우), 1992년 42.0%(김영삼), 1997년 40.3%(김대중)에 그쳤다. 아마 당시에는 그나마 결선투표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2000년 이후에는 상황이 바뀌어서 한국의 대통령은 2002년 48.9%(노무현)와 2007년 48.7%(이명박)에 이어 2012년 51.6%(박근혜)를 득표하면서 당선되었다. 한국의 대통령이 이미 50%에 매우 가깝거나 과반수를 득표한 상태에서 당선되는데도 불구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할 과제이다.

## 참고문헌

- Alexander, Henry M.(1944), "The Double Primary," *Arkansas Historical Quarterly*, Vol. 3, pp. 217-268.
- An, Yong Heun(2009), "A Panel Analysis of the Impact on Turnout Rate of Run-Off System and Globalization,"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43, No. 4, pp. 301-325.
- \_\_\_\_\_(2010), "Electoral Formula, Social Cleavages, and the Political Party System," *Contemporary Politics*, Vol. 3, No. 2, pp. 37-59.
- \_\_\_\_\_(2014), "Trade Openness, Presidential Run-Off System, and Party System," *Peace Studies*, Vol. 22, No. 1, pp. 245-280.
- Birch, Sarah(2003), "Two-Round Electoral Systems and Democracy,"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36, pp. 319-344.
- Blais, Andre, Louis Massicotte and Agnieszka Dobrzynska(1997), "Direct Presidential Elections: A World Summary," *Electoral Studies*, Vol. 16, No. 4, pp. 441-455.
- Blake, Charles(2005), *Politics in Latin America*,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Bullock, Charles S.III. and Loch K. Johnson(1992), *Runoff Elections in the United States*,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Bullock, Charles S.III., Ronald Keith Gaddie and Anders Ferrington(2002), "System Structure, Campaign Stimuli, and Voter Falloff in Runoff Primaries," *Journal of Politics*, Vol. 64, No. 4, pp. 1210-1224.
- Cox, Gary W.(1997), *Making Votes Count: Strategic Coordination in the World's Electoral System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ngstrom, Richard L. and Richard N. Engstrom(2008), "The Majority Vote Rule and Runoff Primaries in the United States," *Electoral Studies*, Vol. 27, pp. 407-416.
- Ewing, Cortez A.M.(1953), *Primary Elections in the South*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Fauvelle-Aymar, Christine and Michael S. Lewis-Beck(2008), "TR versus PR: Effects of the French Double Ballot," *Electoral Studies*, Vol. 27, pp. 400-406.
- Glaser, James M.(2006), "The Primary Runoff as a Remnant of the Old South," *Electoral Studies*, Vol. 25, pp. 776-790.
- Golder, Matt(2005), "Democratic Electoral Systems around the World, 1946-2000," *Electoral Studies*, Vol. 24, pp. 103-121.
- Go, Seon-Gyu(2013), "Social Integration and Reform of Electoral System: Political Effects of the Runoff System," *North East Studies*, Vol. 18, pp. 23-48.
- Grofman, Bernard(2008), "A Taxonomy of Runoff Methods," *Electoral Studies*, Vol. 27, pp. 395-399.
- Hong, Jae-Woo, Hyung-Cheol Kim, Sungdai Cho(2012), "Coalition Governments under Presidential Systems: The Institutional Solutions on Institutional

- Limitations,”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46, No. 1, pp. 89-112.
- Indridason, Indridi H.(2008), “Competition and Turnout: The Majority Run-off as a Natural Experiment,” *Electoral Studies*, Vol. 27, pp. 699-710.
- Jones, Mark P.(1995), “A Guide to the Electoral Systems of the Americas,” *Electoral Studies*, Vol. 14, No. 1, pp. 5-21.
- Key, V.O. Jr.(1949), *Southern Politics in State and Nation*, New York: Alfred A. Knopf.
- Kim, Cheol-Soo(2008), *On Constitution*, Pakyoungsa.
- Kim, Jonggab(2014), “Proposal to Introduce the Two-Round Vote System in Presidential Elections: Proposing a Modified AV System,” *Electoral Studies*, Vol. 4, No. 1, pp. 7-32.
- Kim, Jung-Hyun(2012), “A Study on the Presidential Run-off Syste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Vol. 40, pp. 159-186.
- Kousser, J. Morgan(1984), “Origins of the Run-off Primary,” *Black Scholar*, Vol. 15, pp. 23-26.
- Lanier, Mark(1983), “The Runoff Primary: A Path to Victory,” *N. C. Insight*, Vol. June, pp. 18-23.
- Laveri, Michael, Kenneth Benoit and Nicolas Sauger(2006), “Policy Competition in the 2002 French Legislative and Presidential Election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Vol. 45, pp. 667-697.
- Lee, Jae-Sun(2012), “A Study on a Final Vote System,” *Policy Science Review*, Vol. 21, No. 2, pp. 135-158.
- Lee, Junhan(2006), “Run-off Systems in Latin America,”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Vol. 15, No. 4, pp. 99-122.
- \_\_\_\_\_(2010), “A Critique on the Runoff Systems,”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Vol. 5, No. 2, pp. 101-127.
- Lee, Sang-Myeong(2014), “A Study on the Reformation of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Han Yang Law Review*, Vol. 45, pp. 253-274.
- McClintock, Cynthia(2007), “Plurality versus Runoff Rules for the Election of the President in Latin America: Implications for Democracy,” Paper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Chicago, Ill, August 30-September 2, 2007.
- O'Donnell, Guillermo, Jorge Vargas Cullell and Osvaldo Lazetta(2004), *The Quality of Democracy*,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Park, Kyungmee(2010), “Two Round Runoff System and Its Diverse Political Effect: Political Reforms of France and Brazil,” *Contemporary Politics*, Vol. 3, No. 2, pp. 251-275.
- Patterson, B.C.(1983), “The Three Rs Revisited: Redistricting, Race and Representation in North Carolina,” *Phylon*, Vol. 44, No. 3, pp. 232-243.
- Perez-Linan, Anibal(2006), “Evaluating Presidential Runoff Elections,” *Electoral Studies*, Vol. 25, pp. 129-146.
- Sartori, Giovanni(1994), *Comparative Constitutional Engineering: An Inquiry into Structures*,

- Incentives, and Outcome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Segl, Horacio Vives(2006), "The 2003 and 2005 Elections in Argentina: From Anomaly and Emergency to the Legitimization of a Government," *Taiwan Journal of Democracy*, Vol. 2, No. 1, pp. 107-122.
- Shugart, Matthew and Rein Taagepera(1994), "Plurality versus Majority Election of Presidents: A Proposal for a 'Double Complement Rul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27, No. 3, pp. 323-349.
- Song, Shi-Woo(2014),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the Final Vote System in Presidential Elections," *Sogang Law Review*, Vol. 3, No. 1, pp. 3-26.
- Stewart, Joseph Jr., James F. Sheffield Jr. and Margaret E. Ellis(1995), "The Mechanisms of Runoff Primary 'Disadvantage'," *Social Science Quarterly*, Vol. 76, pp. 807-822.
- Sung, Nagin(2012), *On Constitution*, Beobmoonsa.
- Wiarda, Howard(2006), *Latin American Politics and Development*, CO: Westview Press.
- Wright, Stephen G.(1989), "Voter Turnout in Runoff Elections," *Journal of Politics*, Vol. 51, No. 2, pp. 385-396.

Article Received: 2015. 11. 30.

Revised: 2016. 02. 03.

Accepted: 2016. 02. 05.

## 부 록

번호	국가	년도	후보자	1차 투표(%)	2차 투표(%)	변화(% P)
1	아르헨티나	2015	wikipedia			
	투표율			26,048,446 (81.23)	25,952,906 (80.93)	-0.30
	최종 1위		Gabriela Michetti	8,601,131 (34.15)	12,997,938 (51.34)	+17.19
	최종 2위		Carlos Zannini	9,338,490 (37.08)	12,317,329 (48.66)	+11.58
2	브라질	1989	georgetown/wikipedia	11월 15일	12월 17일	
	투표율			74,280,909 (90.5)	70,260,701 (85.6)	-4.9
	최종 1위		Fernando Collor de Mello	22,611,011 (28.52)	35,089,998 (49.94)	+21.42
	최종 2위		Luis Inácio Lula da Silva	11,622,673 (16.08)	31,076,364 (44.23)	+28.15
3	브라질	2002	georgetown/wikipedia	10월 6일	10월 27일	
	투표율			93,982,874 (82.26)	91,664,259 (79.53)	-2.73
	최종 1위		Luis Inacio Lula da Silva	39,443,765 (46.40)	52,912,485 (61.43)	+15.03
	최종 2위		Jose Serra	19,700,395 (23.20)	33,217,104 (38.57)	+15.37
4	브라질	2006	georgetown/wikipedia	10월 1일	10월 29일	
	투표율			104,820,459 (83.20)	101,998,221 (80.96)	-2.24
	최종 1위		Luiz Inácio Lula da Silva	46,662,365 (46.61)	58,295,042 (60.82)	+14.21
	최종 2위		Geraldo Alckmin	39,968,369 (41.63)	37,543,178 (39.17)	-2.46
5	브라질	2010	georgetown/wikipedia	10월 3일	11월 1일	
	투표율			111,193,747 (81.88)	106,606,214 (78.50)	-3.38
	최종 1위		Dilma Rousseff	47,651,434 (46.91)	55,752,529 (56.05)	+9.14
	최종 2위		José Serra	33,132,283 (32.61)	43,711,388 (43.95)	+11.34
6	브라질	2014	wikipedia	10월 5일	10월 26일	
	투표율			115,122,611 (80.61)	112,683,879 (78.90)	-1.71
	최종 1위		Dilma Rousseff	43,267,668 (41.59)	54,501,118 (51.64)	+10.05
	최종 2위		Aécio Neves	34,897,211 (33.55)	51,041,155 (48.36)	+14.81
7	칠레	1999	georgetown/wikipedia	12월 12일	1월 16일 (2000)	
	투표율			7,271,572 (89.94)	7,326,753 (90.62)	+0.68
	최종 1위		Ricardo Lagos	3,383,339 (47.96)	3,683,158 (51.31)	+3.35
	최종 2위		Joaquin Lavin	3,352,199 (47.51)	3,495,569 (48.69)	+1.18
8	칠레	2009	georgetown/wikipedia	12월 13일	1월 17일 (2010)	

	투표율			7,264,136 (87.68)	7,186,344 (86.94)	-0.74
	최종 1위		Sebastián Piñera Echenique	3,074,164 (44.06)	3,582,800 (51.60)	+7.54
	최종 2위		Eduardo Frei Ruiz-Tagle	2,065,061 (29.60)	3,359,801 (48.39)	+18.79
9	칠레	2013	wikipedia	11월 17일	12월 15일	
	투표율			6,699,011 (49.35)	5,697,751 (41.98)	-7.37
	최종 1위		Michelle Bachelet	3,075,839 (46.70)	3,470,379 (62.16)	+15.46
	최종 2위		Evelyn Matthei	1,648,481 (25.03)	2,111,891 (37.83)	+12.80
10	콜롬비아	1994	georgetown/wikipedia	5월 29일	6월 19일	
	투표율			5,821,331 (34.0)	7,379,884 (43.3)	+9.3
	최종 1위		Ernesto Samper Pizano	2,623,210 (45.30)	3,733,366 (50.57)	+5.27
	최종 2위		Andrés Pastrana Arango	2,604,771 (44.98)	3,576,781 (48.45)	+3.47
11	콜롬비아	1998*	georgetown/wikipedia	5월 31일	6월 21일	
	투표율			10,664,155 (50.35)	12,274,923 (59.0)	+8.65
	최종 1위		Andrés Pastrana	3,607,945 (34.34)	6,086,507 (50.39)	+16.05
	최종 2위		Horacio Serpa	3,634,823 (34.59)	5,620,719 (46.53)	+11.94
12	콜롬비아	2010	georgetown/wikipedia	5월 30일	6월 20일	
	투표율			14,764,362 (49.27)	13,337,658 (44.33)	-4.94
	최종 1위		Juan Manuel Santos	6,758,539 (46.54)	9,004,221 (69.05)	+22.51
	최종 2위		Antanas Mockus	3,120,716 (21.49)	3,588,819 (27.52)	+6.03
13	콜롬비아	2014*	wikipedia	5월 25일	6월 15일	
	투표율			13,216,402 (40.07)	15,794,940 (47.89)	+7.82
	최종 1위		Juan Manuel Santos	3,301,815 (25.69)	7,816,986 (50.95)	+25.26
	최종 2위		Óscar Iván Zuluaga	3,759,971 (29.25)	6,905,001 (45.00)	+15.75
14	코스타리카	2002	georgetown/wikipedia	2월 3일	4월 7일	
	투표율			1,569,418 (68.81)	1,372,942 (60.96)	-7.85
	최종 1위		Abel Pacheco de La Espriella	590,277 (38.58)	776,278 (57.95)	+19.37
	최종 2위		Rolando Araya Monge	475,030 (31.05)	563,202 (42.05)	+11.00
15	코스타리카	2014	wikipedia	2월 17일	4월 7일	
	투표율			2,055,472 (68.19)	1,689,171 (56.63)	-11.56
	최종 1위		Luis Guillermo Solís	629,866 (30.64)	1,314,327 (77.81)	+47.17
	최종 2위		Johnny Araya Monge	610,634 (29.71)	374,844 (22.19)	-7.52
16	도미니카 공화국	1996*	wikipedia	5월 16일	6월 30일	

	투표율			2,948,979 (78.6)	2,880,425 (76.8)	-1.8
	최종 1위		Leonel Fernandez Reyna	1,130,523 (38.9)	1,466,382 (51.2)	+12.3
	최종 2위		Jose Francisco Pena Gunez	1,192,211 (41.1)	1,394,641 (48.8)	+7.7
17	에콰도르	1978	wikipedia	7월 16일	4월 29일 (1979)	
	투표율			1,576,366 (75.46)	1,681,286 (80.5)	+5.04
	최종 1위		Jaime Roldós Aguilera	381,215 (27.7)	1,025,148 (68.5)	+40.8
	최종 2위		Sixto Durán Ballén	328,461 (23.9)	471,657 (31.5)	+7.6
18	에콰도르	1984*	wikipedia	1월 29일	5월 6일	
	투표율			2,646,844 (70.9)	2,964,298 (78.1)	+7.2
	최종 1위		León Febres Cordero	600,563 (27.2)	1,381,709 (51.5)	+24.3
	최종 2위		Rodrigo Borja Cevallos	634,327 (28.7)	1,299,089 (48.5)	+19.8
19	에콰도르	1988	wikipedia	1월 31일	5월 8일	
	투표율			3,632,842 (78.13)	3,612,635 (77.70)	-0.43
	최종 1위		Rodrigo Borja Cevallos	1,381,709 (24.5)	1,700,648 (54.0)	+29.5
	최종 2위		Abdalá Bucaram Party	535,482 (17.6)	1,448,498 (46.0)	+28.6
20	에콰도르	1992	wikipedia	5월 17일	7월 5일	
	투표율			4,089,743 (71.6)	4,174,097 (73.1)	+1.5
	최종 1위		Sixto Durán Ballén	1,089,154 (31.9)	2,146,762 (57.3)	+25.4
	최종 2위		Jaime Nebot Social	855,225 (25.0)	1,598,707 (42.7)	+17.7
21	에콰도르	1996*	georgetown/wikipedia	5월 19일	7월 7일	
	투표율			4,525,881 (67.9)	4,777,526 (71.7)	+3.8
	최종 1위		Abdala Bucaram	1,001,071 (22.11)	2,285,397 (47.84)	+25.73
	최종 2위		Jaime Nebot	1,035,101 (22.87)	1,910,651 (39.99)	+17.12
22	에콰도르	1998	wikipedia	5월 31일	7월 12일	
	투표율			4,537,822 (64.2)	4,960,075 (70.1)	+5.9
	최종 1위		Jamil Mahuad	1,342,114 (34.9)	2,243,000 (51.2)	+16.3
	최종 2위		Alvaro Noboa	1,022,667 (26.6)	2,140,481 (48.8)	+22.2
23	에콰도르	2002	georgetown/wikipedia	10월 20일	11월 24일	
	투표율			5,178,885 (62.89)	5,807,109 (71.21)	+8.32
	최종 1위		Lucio Edwin Gutierrez	913,113 (20.43)	2,803,243 (54.79)	+34.36
	최종 2위		Alvaro Noboa	776,132 (17.37)	2,312,854 (45.21)	+27.84
24	에콰도르	2006*	georgetown/wikipedia	10월 15일	11월 26일	



	투표율		<a href="http://www.electionguide.org/countries/id/64/">http://www.electionguide.org/countries/id/64/</a>	6,617,167 (72.2)	6,966,145 (76.01)	+3.81
	최종 1위		Rafael Correa	1,246,333 (22.84)	3,517,635 (56.67)	+33.83
	최종 2위		Álvaro Noboa	1,464,251 (26.83)	2,689,418 (43.33)	+16.50
25	엘살바도르	1984	georgetown/wikipedia	3월 25일	5월 6일	
	투표율			1,419,503 (56.05)	1,524,079 (60.18)	+4.13
	최종 1위		José Napoleón Duarte	549,727 (43.41)	752,625 (53.59)	+10.18
	최종 2위		Roberto d'Aubuisson	376,917 (29.77)	651,741 (46.41)	+16.64
26	엘살바도르	1994	wikipedia	3월 20일	4월 24일	
	투표율			1,411,320 (52.27)	1,246,220 (46.16)	-6.11
	최종 1위		Armando Calderon Sol	641,108 (49.0)	818,264 (68.3)	+19.3
	최종 2위		Ruben Zamora	325,582 (24.9)	378,980 (31.7)	+6.8
27	엘살바도르	2014	wikipedia	2월 2일	3월 9일	
	투표율			2,723,246 (54.96)	3,004,845 (60.64)	+5.68
	최종 1위		Salvador Sánchez	1,315,768 (48.93)	1,495,815 (50.11)	+1.18
	최종 2위		Norman Quijano	1,047,592 (38.96)	1,489,451 (49.89)	+10.93
28	과테말라	1985	georgetown/wikipedia	11월 3일	12월 8일	
	투표율			1,907,771 (60.94)	1,657,823 (69.28)	+8.34
	최종 1위		Mario Vinicio Cerezo Arevalo	648,681 (38.65)	1,133,517 (68.37)	+29.72
	최종 2위		Jorge Carpio Nicolle	339,522 (20.23)	542,306 (31.63)	+11.40
29	과테말라	1990*	wikipedia	11월 11일	1월 6일 (1991)	
	투표율			1,808,801 (48.73)	1,449,489 (36.91)	-11.82
	최종 1위		Jorge Serrano	375,165 (24.1)	936,389 (68.1)	+44.0
	최종 2위		Jorge Carpio	399,777 (25.7)	438,990 (31.9)	+6.2
30	과테말라	1995	wikipedia	11월 12일	1월 7일 (1996)	
	투표율			1,737,033 (46.80)	1,368,828 (36.91)	-9.89
	최종 1위		Álvaro Arzú	565,393 (36.5)	671,354 (51.2)	+14.7
	최종 2위		Alfonso Portillo Cabrera	341,364 (22.0)	639,404 (48.8)	+26.8
31	과테말라	1999	georgetown/wikipedia	11월 7일	12월 26일	
	투표율			2,397,212 (53.8)	1,799,928 (40.4)	-13.4
	최종 1위		Alfonso Portillo	1,045,820 (47.72)	1,184,932 (68.31)	+20.59
	최종 2위		Oscar Berger	664,417 (30.32)	549,408 (31.69)	+1.37
32	과테말라	2003	georgetown/wikipedia	11월 9일	12월 28일	

	투표율			2,937,169 (55.91)	2,373,469 (46.58)	-9.33
	최종 1위		Orcar Berger Perdomo	921,233 (34.33)	1,235,303 (54.13)	+19.80
	최종 2위		Alvaro Colom Caballeros	707,578 (26.36)	1,046,868 (45.87)	+19.51
33	과테말라	2007	georgetown/wikipedia	9월 9일	11월 4일	
	투표율			3,621,852 (60.46)	2,895,613 (48.34)	-12.12
	최종 1위		Alvaro Colom	926,244 (28.23)	1,449,153 (52.82)	+24.59
	최종 2위		Otto Perez Molina	771,175 (23.51)	1,294,645 (47.18)	+23.67
34	과테말라	2011	georgetown/wikipedia	9월 11일	11월 6일	
	투표율			5,093,230 (69.38)	4,465,118 (60.83)	-8.55
	최종 1위		Otto Perez Molina	1,611,493 (36.01)	2,300,979 (53.74)	+17.73
	최종 2위		Manuel Antonio Baldizon Mendez	1,038,287 (23.20)	1,981,001 (46.26)	+23.06
35	과테말라	2015	wikipedia	9월 6일	10월 25일	
	투표율			71.33	56.32	-15.01
	최종 1위		Jimmy Morales	1,167,030 (23.85)	2,750,847 (67.44)	+43.59
	최종 2위		Sandra Torres	967,242 (19.76)	1,328,381 (32.56)	+12.80
36	아이티	2010	georgetown/wikipedia	11월 28일	3월20일 (2011)	
	투표율			1,074,056 (22.79)	1,061,089 (22.52)	-0.27
	최종 1위		Michel Joseph Martely	234,617 (21.84)	716,986 (67.57)	+45.73
	최종 2위		Mirlande Manigat	336,878 (31.37)	336,747 (31.74)	+0.37
37	페루	1990*	georgetown/wikipedia	4월 8일	6월 10일	
	투표율			7,866,858 (78.3)	7,999,978 (79.5)	+1.2
	최종 1위		Alberto Keinya Fujimori	1,937,186 (24.6)	4,522,563 (56.5)	+31.9
	최종 2위		Alejandro Toledo Manrique	2,171,957 (27.6)	2,713,442 (33.9)	+6.3
38	페루	2000	georgetown/wikipedia	4월 9일	5월 28일	
	투표율			12,066,229 (82.83)	11,800,310 (81.00)	-1.83
	최종 1위		Alberto Fujimori	5,437,329 (45.92)	6,041,685 (51.20)	+5.28
	최종 2위		Alejandro Toledo	4,400,061 (37.16)	2,086,215 (17.68)	-19.48
39	페루	2001	georgetown/wikipedia	4월 8일	6월 3일	
	투표율			12,264,349 (82.31)	12,128,406 (81.36)	-0.95
	최종 1위		Alejandro Toledo	3,871,167 (36.51)	5,548,209 (53.08)	+16.57
	최종 2위		Alan Garcia	2,732,857 (25.78)	4,904,813 (46.92)	+21.14
40	페루	2006*	georgetown	4월 9일	6월 4일	

	투표율			12,275,385 (83.89)	13,235,097 (91.48)	+7.59
	최종 1위		Alan García Perez	2,985,858 (24.32)	6,965,017 (52.63)	+28.31
	최종 2위		Ollanta Humala Tasso	3,758,258 (30.62)	6,270,080 (47.37)	+16.75
41	페루	2011	georgetown	4월 10일	6월 5일	
	투표율			16,699,734 (83.71)	16,466,397 (82.54)	-1.17
	최종 1위		Ollanta Humala	4,643,064 (31.69)	7,937,704 (51.45)	+19.76
	최종 2위		Keiko Fujimori	3,449,595 (23.55)	7,490,647 (48.55)	+25.00
42	우루과이	1999*	georgetown/wikipedia	10월 31일	11월 28일	
	투표율			2,204,884 (91.79)	2,206,112 (91.84)	+0.05
	최종 1위		Battle-Hierro	694,617 (31.32)	1,138,067 (51.59)	+20.27
	최종 2위		Vazquez-Nin Novoa	854,170 (38.51)	972,197 (44.07)	+5.56
43	우루과이	2009	georgetown	10월 25일	11월 29일	
	투표율			2,256,051 (88.01)	2,285,958 (89.18)	+1.17
	최종 1위		José Alberto Mujica Cordanó	1,093,869 (48.16)	1,197,638 (52.39)	+4.23
	최종 2위		Luis Alberto Lacalle de Herrera	657,327 (28.94)	994,510 (43.51)	+14.57
44	우루과이	2014	wikipedia	10월 26일	11월 30일	
	투표율			2,372,117 (90.51)	2,321,230 (88.57)	-1.94
	최종 1위		Tabaré Vázquez	1,134,187 (49.45)	1,226,105 (56.63)	+7.18
	최종 2위		Luis Alberto Lacalle Pou	732,601 (31.94)	939,074 (43.37)	+11.43